대우건설, 수도방위사령부에 3000만원 위문금

대우건설은 지난 14일 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해 국군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문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문금 전달식에서 김형 대우건설 대표이사(오른쪽)와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우건설

KB증권, 다문화 가정에 '情듣듣 KB박스' 전달

KB증권이 추석을 맞이해 지역사회 소외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햄, 참치 등 식료품을 담은 '정(情)듣듣' KB박스를 다문화 가정 200세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종갑 KB증권 커뮤니케이션본부장(왼쪽부터), 박정림·김성현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한국투자證-중견련, 상생협력 위한 업무협약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상생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은 중견기업의 자산 규모 확대에 따른 자산관리 수요를 충족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오른쪽)과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인사

◆**해양수산부** ◇부이사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임영훈 △국제협력총괄과장 유은원 △해운정책과장 허만욱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 승진 △제2차관실 권주현 △통상교섭본부장실 이가영 △감사담당관실 이남용 △기계로봇항공과 황승완 △바이오융합산업과 오수만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민현지 △규제샌드박스팀 박성환 △지역경제총괄과 김덕기 △에너지전환정책과 한종호 △수소경제정책과 송영상 △자원안보정책과 지민정 △자원안보정책과 윤종성 △자원안보정책과 양해구 △원전환경과 류재형 △통상정책총괄과 엄길용 △통상분쟁대응과 조무경 △무역정책과 안진호 △수출입과 정재환 △무역구제정책과 전성규 △기획재정담당관실 천강 △지역경제총괄과 송정훈 △지역경제총괄과 정병찬 △재생에너지정책과 강은구 △해외투자과 조영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박해범

부음

▲조경자 씨 별세, 김상진(SBS 경영본부 기술부본부장) 씨 모친상 = 15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7일. 010-3150-6229

▲조두흠씨(前 일간스포츠 사장·한국일보 상임고문) 별세, 조성원(고려대학교 교수)·태원(오픈코퍼레이션 대표)·영주씨(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부친상, 김양수씨(서울아산병원 교수) 장인상, 이윤주·김성은씨(한국무역보험공사) 시부상 = 14일 오후 10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 발인 17일 오전 7시. (02)3010-2000

▲류창수씨 별세, 류종운(전 월간 말지 미술부장)씨 부친상 = 15일 오전 2시, 포항세명기독병원 5층 특실, 발인 17일 오전 7시 ☎ 0504-3182-3568

▲김강순씨 별세, 권순재(전북도민일보 차장)씨 외조모상, 은희준(부안농공단지협회 협회장)씨 장모상=15일, 전주모악장례문화원 301호, 발인 17일 오전 9시 30분. 063-286-4444

"똑똑하게 마셔요" 오비맥주, 건전음주 전사 캠페인

섞어 마시지 않기 등 8계명 공개
건전한 음주문화 위해 1.2조 투자

오비맥주가 2010년 제정한 '글로벌 건전음주의 날'을 올해부터 '글로벌 건전음주 주간(Global Smart Drinking Week, 이하 GSDW)'으로 확대하고 일주일간 건전음주 전사캠페인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오비맥주의 글로벌 본사 AB인베브는 책임 있는 음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올바른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9월 셋째 주 금요일을 '글로벌 건전음주의 날'로 정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해왔다.

주류 선도기업으로서 전 세계의 AB인베브 소속 임직원들에게 건전음주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캠페인을 일주일로 확대하고 '똑똑하게 마시기'라는 구호 아래 음주운전과 폭음 등을 예방하기 위한 건전음주 캠페인을 펼친다.

오비맥주 배하준 대표(왼쪽 두 번째)와 구자범 부사장(왼쪽 세 번째)이 14일 실시한 '글로벌 건전음주 주간' 행사에서 캔 조형물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오비맥주

이에 오비맥주는 전날 글로벌 건전음주 주간 행사를 열고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건전음주 8계명'을 선보였다. ▲나의 주량 알기 ▲고민될 땐 카스 0.0 마시기 ▲섞어 마시지 않기 ▲안주와 함께 ▲대리기사 부르기 ▲빨리 마시지 않기 ▲물 많이 마시기 ▲휴식 시간 갖기 등 폭음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오비맥주 임직원들은 건전음주 실천 의지를 담아 '카스 0.0 캔스트럭션'도 만들었다. 오비맥주 본사 임직원들은 건전음주 8계명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카스 0.0캔 하단에 직접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캔스트럭션을 완성해 나갔다. 본사에 설치된 음주운전 가상체험 VR(VR)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도 체험했다. 또한 17일까지 전 임직원 대상 해시태그 이벤트도 실시한다.

오비맥주는 2014년 글로벌 본사 AB인베브와 함께 '글로벌 스마트 드링킹 목표'를 수립했다. 2025년까지 무분별한 음주를 줄이고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해 10억 달러(약 1조2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

명절 마다 이웃사랑 1.5억상당 백미 기부

에이스침대 창업주 안유수 회장(사진)이 추석 명절을 맞아 또다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15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재단법인 에이스경암 안유수 이사장은 경기 성남시에 1억5000만원 상당의 백미를 기부했다. 기부한 쌀은 10kg, 5840포대로 성남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 전해질 예정이다.

안 이사장은 지난 1999년부터 23년째 매해 설과 추석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백미 기부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소외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설에 이어 추석에도 지원규모를 확대해 독거노인 5518세대와 소년·소녀 가장 322세대에 쌀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안 이사장의 기부 활동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바탕에 둔 것으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꾸준한 기부를 통해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다.

안 이사장이 그동안 지역 사회에 기부한 백미의 양은 10kg 기준 12만여포로, 금액으로는 약 27억원에 어치에 달한다.

안 이사장은 "추석은 우리나라 민족 대명절로 가장 따뜻하게 보내야 하는 시기지만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쌀 기부를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KT, 강원도와 지역 상생발전 위해 머리 맞댄다

나눠정 앱, ESG상생협의체 통해
지역 소상공인·농어민지원 확대

KT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지역 소상공인 및 농어민 지원을 위해 나선다.

KT는 강원도청과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광화문 KT 이스트사옥에서 '강원 지역 소상공인 및 농어민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KT 구현모 대표이사, 경영지원부문장 신현옥 부사장, 강원도청 최문순 도지사 등이 참석해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농민을 위해 지역상생의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KT와 강원도청은 착한 플랫폼 나눠정 애플리케이션과 지역상생 ESG 협의체 광화문원팀을 통해 강원도민에 대한 상시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나눠정 앱에서 강원도 지역 특산물을 판매해 광화문원팀 소속 임직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T 구현모 대표(왼쪽)와 강원도청 최문순 도지사(오른쪽)가 1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광화문 KT 이스트사옥에서 강원도 지역 특산물을 보고 있다. /KT

KT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강원도 철원 오대쌀, 한과 세트 등 '강원도 특산물 한가위 나눔 장터'를 14일부터 나눠정 앱에서 진행한다.

이선주 KT ESG경영추진실장은 "이번 협약이 코로나19로 지친 강원도 소상공인과 농어민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T는 강원도청과 함께할 수 있는 ESG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준혁 기자 junhyuk@

CJ프레시웨이, 세종시 종이팩 자원순환체계 지원

어린이집 종이팩 수거함 설치
분리배출 등 환경보호 교육도

CJ그룹의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전문기업 CJ프레시웨이가 세종특별자치시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센터)가 함께 하는 종이팩 자원순환체계 운영에 힘을 보탠다.

이번 협력을 통해 CJ프레시웨이는 종이팩 재활용을 돕는 동시에 아이들의 환경보호 교육에도 나설 방침이다.

지난 14일 세종특별자치시 윤빛어린이집에서 진행된 분리배출 수거교육 '종이팩 가족을 구해줘'에는 세종특별자치시청 관계자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CJ프레시웨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세종시와 유통센터, CJ프레시웨이가 함께하는 종이팩 자원순환체계 운영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어린이집 원아 30명은 재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간식으로 마신 우유 종이팩을 직접 세척한 뒤 분리해 미리 설치된 분류함에 배출했다. 이후 종이팩 원료 펄프로 만든 재생 휴지를 사용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4일 세종시 윤빛어린이집에서 진행된 분리배출 수거교육을 마친 한 원아가 종이팩을 직접 세척·분리해 수거함에 넣고 있다. /CJ프레시웨이

CJ프레시웨이는 ESG 경영 활동으로 세종시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소속 어린이를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유통센터는 종이팩 수거에 필요한 수거함을 제작하며, 세종시는 배출된 종이팩을 수거해 재활용에 나선다.

종이팩 자원순환체계는 세종시가 유통센터와 손잡고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구축한 환경보호 사업이다.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종이팩을 분리배출함을 통해 회수해 제지업체로 납품하며, 제지업체는 해당 종이팩으로 친환경 재생 화장지를 생산해 취약 계층과 참여 주민에게 전달한다. /신원선 기자